

## HEADLINE NEWS

### 도심지역의 교통혼잡 해결 위해 교통체계 개선책 다각 추진 (뉴욕)

미국 뉴욕시는 지난 봄에 실시한 교통조사에서 맨해튼 중부지역의 자동차 평균통행속도가 시간당 4.8마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지역의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중이다. 시는 우선, 아침 출근시간대 일부 특정도로를 대상으로 '나홀로 승용차' 통행 금지, 버스전용차로 지정, 도시고속도로에 카풀 차로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36번과 60번 사이의 10개 동서도로를 횡단도로로 만들어 3번과 6번 남북도로 사이에서는 좌우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맨해튼을 횡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42번과 60번 사이의 동서도로에 3단계 신호로 구분된 보행자 횡단보도를 37군데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만성적인 도로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번에서 6번 사이의 남북도로와 42번에서 60번 사이의 비횡단 동서도로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254-02.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지정 (동경)
- ② 시청앞 광장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개방 (독일: 브레멘)

### 도시환경

- ③ 「야간 소음과의 전쟁」 선포 (뉴욕)

### 도시교통

- ④ 이용자 편의 위해 버스 색깔로 버스 노선 구분 (영국: 글래스고시)
- ⑤ 「버스이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미국: 브로워드 카운티 / 요르단: 암만)
- ⑥ 대중교통 활성화정책과 연계해 택시 확충 (파리)

### 사회복지

- ⑦ 「우수 어린이보육시설」 선정해 시상 (베를린)

### 행재정

- ⑧ 자원봉사 참여 유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행사 개최 (베를린)
- ⑨ 「9. 11 테러」 당시 순직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리명으로 확정 (뉴욕)
- ⑩ 市조직의 뇌물수수내역 담은 「부패보고서」 발간 (뉴욕)

### ①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지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올해 4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해 1차로 7개 지역 (면적 2,370ha)을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 최근 지정했다. 7개 지역은 ① 東京驛·有樂町驛 주변, ② 環狀2호선 주변의 新橋·赤坂·六本木, ③ 神田·秋葉原, ④ 臺場 등 東京 임해, ⑤ 新宿驛 주변, ⑥ 環狀4호선 新宿富久 도로변, ⑦ 大崎驛 주변이다. 이들 지역들은 都의 기성시가지로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이 긴요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결정 절차와 사업인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대폭적인 시간 단축과 비용 삭감 그리고 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정비지역 내의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 내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사업자에게 무이자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의 금융지원책도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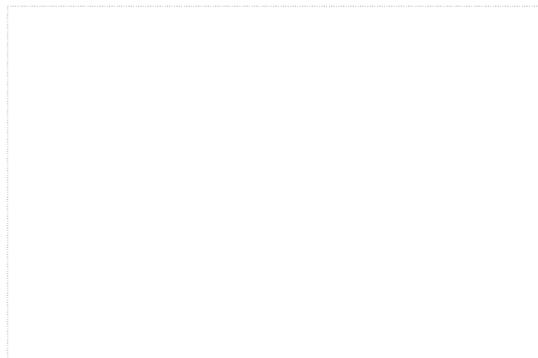
(日本經濟新聞, 8. 29)

### ② 시청앞 광장 재정비에 시민들에게 개방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市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시청사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市는 낡은 시청사 정면을 비롯해 시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200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청앞 광장의 낡은 도로를 걷어내고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 광장 보수 작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청앞 광장은 승용차로는 통행할 수 없었으며, 전차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市는 새로이 단장되는 광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ww.bremen.de)



### ③ 「야간 소음과의 전쟁」 선포 (뉴욕)

소음은 미국 뉴욕시 경찰국의 '삶의 질 직통라인(Quality of Life Hotline)'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만사항이다. 지난해 총 9만 7천건의 '삶의 질' 불만 접수건수 중 소음 불만이 약 83%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이미 9만 3천건의 소음 불만이 접수되었다. 시는 이와 같은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음문제가 가장 심한 24개 지역을 선정해 소음 척결을 위한 「조용한 밤 작전(Operation Silent Night)」을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금년 10월 4일부터 시작된 「조용한 밤 작전」에는 시경찰국·소비자사무국·환경보호국·건물관리국·공원여가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유흥업소에서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가정집의 오디오, 고성방가, 상점 스피커 등 모든 소음원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한 수시 측정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소음발생지역, 교차로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소환장 발부, 자동차 견인, 오디오장비 압수,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시경찰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모니터링 하고, 소음 불만이 제기될 경우 담당지역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리고 시환경보호국은 냉방기, 환풍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257-02.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257-02.html))

### ④ 이용자 편의 위해 버스 색깔로 버스 노선 구분 (영국: 글래스고시)

영국 글래스고(Glasgow)시는 버스 노선별로 버스 색깔을 달리해 버스 이용자들이 쉽게 버스 노선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시의 트램(tram) 도입 1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주민들의 문맹률이 높았던 과거에 버스 색깔로 버스 노선을 구분했던 점에 착안했다. 시는 26개 노선 중 14개 노선에 이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며, 버스 정류장도 버스 노선별 색깔에 맞춰 새롭게 도색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내·외부에도 버스 노선 안내도를 부착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계획이 버스이용 증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eveningtimes.co.uk/cgi-bin/page?t=news&id=5007256](http://www.eveningtimes.co.uk/cgi-bin/page?t=news&id=5007256))

### ⑤ 「버스이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미국: 브로워드 카운티 / 요르단: 암만)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Broward) 카운티에서는 버스 이용자의 편의 및 버스 이용 증진 방안으로 「버스이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NextBus'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위성이 제공하는 버스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버스도착예정시간을 안내해주게 된다. 이용자는 전화,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 등을 이용해 버스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버스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버스운영업체 입장에서 실제적인 버스운행시간표 작성을 위한 중요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도심을 경유하는 주요 3개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주요 버스정류장에는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요르단 암만(Amman)시는 아랍국가 최초로 「버스이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현재 4개 주요 노선의 버스정류장 200곳에서 버스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전자안내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버스도착시간, 버스요금, 버스노선정보, 버스정류장 위치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주일간의 설치기간 동안 버스 이용객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버스운영업체 또한 서비스 제공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이용정보제공시스템」설치는 암만의 'Public Transport Regulatory Commission'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자원은 광고 수입 및 버스운영업체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조달했다.

([www.miami.com/mld/miami/news/local/4184488.htm](http://www.miami.com/mld/miami/news/local/4184488.htm))

([www.jordantimes.com/Mon/homenews/homenews2.htm](http://www.jordantimes.com/Mon/homenews/homenews2.htm))

### 6 대중교통 활성화정책과 연계해 택시 확충 (파리)

프랑스 파리市에서 운행되는 택시 수는 최근 10년 동안 총 14,900대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제한은 많은 프리미엄을 낳는 결과를 초래, 현재 프리미엄이 12만 유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파리市 경찰청은 파리市長이 추진하는 개인승용차 운행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정책과 연계해 파리市 택시 수를 수요에 맞게 늘리기로 했다.

이전에 파리市에서 택시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20년으로서, 약 25,000대 수준이었다. 이후 1937년 택시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택시 수가 14,000대로 제한되었으며, 그 후 조금씩만 증가해왔다. 市경찰청은 향후 5년 동안 대략 10% 수준의 택시 확충을 검토중이다. 또한, 택시의 모양을 개선해 이용자의 눈에 보다 잘 띄도록 할 방침이다. (르몽드, 9. 14)

### 7 「우수 어린이보육시설」 선정해 시상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우수 어린이보육시설」을 선정해 시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市는 금년 말까지 우수 보육시설을 추천받은 후, 내년 봄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상금으로 2,500~7,500 유로화가 지급될 계획이며, 수상자 선정기준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시간이 탄력적인가 그리고 하루종일 탁아가 가능한가 여부, 둘째, 성별에 따라 다양하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여부, 셋째, 어린이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이와 함께 市는 맞벌이 부부 및 직장여성들을 위해 어린이를 종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Berliner Zeitung, 9. 2)

### 8 자원봉사 참여 유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에서는 지난 9월 14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 2회째인 이번 행사는 市보건복지 및 소비자보호과에서 후원했으며, 市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는 30여개의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재소자들을 위한 위로엽서 그리기, 공원 청소 등 일반 시민들과 장애인 그리고 후원업체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된 내용이었다.

([www.berliner-freiwilligen-tag.de/website\\_Mitmacher/Mitmacher\\_Index2.htm](http://www.berliner-freiwilligen-tag.de/website_Mitmacher/Mitmacher_Index2.htm))

### 9 「9. 11 테러」 당시 순직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리명으로 확정 (뉴욕)

미국 뉴욕市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당시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81명의 이름을 따서 스타튼섬, 브루클린, 퀸스 지역 일대의 거리 이름을 지었다. 이번 거리 이름 변경은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무 수행중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동시에,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이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253-02.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253-02.html))

### 10 市조직의 뇌물수수내역 담은 「부패보고서」 발간 (뉴욕)

미국 뉴욕市는 지난 9월 25일 건설국과 재무국의 비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이들 2개 부서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2억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 뇌물의 대가로, 주로 각종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뇌물 증여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3개 항에 달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252-02.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252-02.html))